

OECD, 식품경제에 관한 논의동향

강 혜 정*

2002년 이후 OECD에서 식품경제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패턴의 변화와 정책과제, 식품공급체인 변화에 따른 농가수익 변화, 민간품질기준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한 것이다.

1. 식품경제(Food Economy) 논의의 배경

소비자의 수요 변화가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변화를 이끄는 현상이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그 동안 OECD 농업위원회는 농업·농촌 문제에 집중한 반면 식품경제 분야에 대한 연구는 소홀한 편이었다. 이에 소비자 수요와 사회의 최근 변화 추세에 대응하고자 식품경제가 새로운 작업 분야로 제시되었다.

2001년 9월 농업위원회 고위급회의에서 각 회원국 대표들은 농업의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자 요구 및 사회적 수요의 변화와 관련한 농식품 분야의 역동성 및 다양성에 관한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에 2003년 2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식품경제 관련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동 세미나에서는 식품경제의 최근 변화 동향과 식품경제에 있어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ang@krei.re.kr 02-3299-4286

2. 식품경제 논의 과정

2003년 5월 농업위원회에서 식품경제 관련 작업분야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2003년 11월 제35차 농업정책 및 시장 작업반회의에서는 농업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품질기준(private standard)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식생활패턴의 변화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작업제안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2004년 11월 제37차 농업정책 및 시장작업반회의에서는 제35차 회의에서 변화하는 소비자의 농식품 수요, 식품소비패턴의 장기전망, 민간품질기준과 농식품 시스템의 세 가지 보고서를 논의하였다.

2005~06년 OECD 농업위원회에서는 주로 민간품질기준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작업을 제안하였다. 제안 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1월 제41차 농업정책·시장작업반회의에서 민간품질기준이 개도국의 세계 공급체인 접근에 미치는 영향과 민간품질기준과 공공품질기준의 상호작용에 관한 보고서가 논의되었다.

2007~08년 OECD 농업위원회 사업예산계획은 “농식품 경제에 관한 종합보고서” 단위 사업 하에 다음의 네 가지 세부작업을 포함하였다. 즉, ① 식품공급체인에서 가격·상품·분배, ② 식품 체인에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전략, ③ 소비자 선호 및 행태 변화에 따른 식품정책, ④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시장 및 정책기반 접근에 대한 보고서들이다.

3. 식품경제 관련 연구의 논의 내용

3.1.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와 정책과제

기술의 발달, 소득증가,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식생활패턴은 계속 변화할 것이다. 이에 품질 및 생산과정에 대한 소비자 기대 및 요구는 정책담당자 및 식품산업 전반에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의 수요 변화에 따라 기업의 생산 행위는 변하고, 정부는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 소비자의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

소득 증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기술진보, 도시화 등으로 반가공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대 등 소비자의 식품소비 행태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 변화는 식품산업계의 생산, 가공, 유통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OECD국가에서 70%의 식품은 원스톱 슈퍼마켓에서 구매되고 있으며, 편이식품 및 전처리식품은 외식과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비회원국은 아직 재래시장 구입비율이 높으나, 점차 대형유통매장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다. 또한 OECD 식품 소매업자들은 비회원국에 체인점을 늘려나가 이들 국가의 식품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산물 및 기능성 식품 등 건강식품과 동물복지 등 식품의 도덕적 측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식품산업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방법 또는 공정무역 등 식품의 특징적인 품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는 생산자에서 제조업자에 이르는 식품체인의 각 주체의 생산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품질인증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외식비중 증가와 패스트푸드 식품의 소비 증가 등의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OECD 회원국의 비만인구 증가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농식품 문제는 건강, 경제개발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FAOSTAT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 지방, 단백질 소비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지방섭취는 권고량(복미기준)의 30%를 초과하나 채소나 과일 섭취는 부족한 편이다. 식품소비행태의 변화는 영양관련질병(만성적인 퇴행성 체중관련 질병)의 발생증가와 깊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2) 농식품 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정책 과제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다양한 정책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식품소비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간편식품 수요 증가와 패스트푸드 식품 발전으로 비만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당뇨, 고혈압, 비만, 심장병 등과 같은 NR-NCD (Nutrition related non-communicable diseases) 질병의 증가로 국가의 의료관련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영양관련 질병의 외부효과를 고려할 경우, 시장에서 결정된 질병유발 식품가격은 낮은 편이다. 따라서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세금 부과는 극빈층에게는 식품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WTO 규범과 충돌 가능성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질병유발 식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다음과 같이 생산단계와 소비단계에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1) 생산단계(원료농산물)에서의 세금부과

○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 PSE 수치가 높은 국가의 비만발생률이

현저히 낮고, 호주, 뉴질랜드, 미국 등 PSE가 낮은 나라의 비만비율은 높다. 문제는 PSE 수치와 비만의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농업지원액만큼의 농산물 가격인상이 최종 소비자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에 달려 있다. 실증연구결과 원료농산물에 대한 세금부과가 최종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소비단계에서의 세금 부과

- 실제로 선진국(예: 영국, 호주)은 비만문제 해결을 위해 고지방 식품에 대한 세금 부과 또는 VAT 면제 축소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세금부과에 따른 비만 감소율은 식품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은 고소득계층의 경우 세금부과가 식품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반면, 수요탄력성이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 식품소비 감소폭이 클 것이다. 중국에서 조사한 결과 저소득계층이 돼지고기 가격상승에 세배이상으로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 식품소비세가 저소득층에게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유사 식품간의 대체가능성은 식품소비세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

(3) 비만인구에 대한 세금 부과

- 고지방식품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보다 비만인구에 직접 세금을 부과(또는 세금부과와 같은 효과가 있는 제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만인에 대한 보험료 할증, 패스트푸드 체인점 취업 제한 등을 도입한 국가들이 있다.

(4) 통합 프로그램의 필요성

- 영양관련 질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 및 제도의 결합이 필요할 수 있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는 질병관리 국가기관 설립,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연구, 다양한 정책결합(식품가격개입, 식품관련 교육 등)을 통하여 상당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

3.2. 식품공급체인(food supply chain)의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변화

식품 공급 체인의 변화가 농가 구조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석 방법론을 논의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주요 논의 내용은, ① 소매업의 구입행태 변화, ② 시장구조와 농가수익, ③ 소매업의 구입행태 변화와 농가수익간의 관계 분석이다.

실증분석 내용은, ① 농가 마케팅 전략과 농가 규모·수익 관계, ② 시장지배력과 소매 마진 측정(분석대상품목: 돈육, 쇠고기, 가금, 분석대상국: 캐나다, 체코, 일본, 네덜란드), ③ 4개국의 육류 공급체인에 따른 가격 전이 효과 분석에 관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① 소매업 집중도의 상승, ② 중앙집권적 구매부서의 운영과 선호공급자의 선택을 통한 소매업자의 후방통합 현상, ③ 식품공급체인에서 가격메커니즘의 복잡화, ④ 계약의 중요성 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식품공급체인의 변화

소매업자들은 대규모 소매분배센터(retail distribution center: DCs)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식품 소매업자들의 매매량 비중은 비식품을 포함하여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선도 소매업자는 식품유통에서 공급자를 선별하고 선호 공급자(preferred suppliers system)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매업자의 선호 공급자 지명은 과실과 채소 생산 농업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소매업의 대형화와 집중화로 인해 소매업자와 농가 간 생산 및 구매 조건을 설정하는 계약과 협상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식품 공급 체인에서의 이러한 계약행위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 및 분배뿐만 아니라 농가 수취가격과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소매업자 구입행태의 변화가 농가구조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

소매업자 구입행태가 농가구조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방법론들이 논의 되어 왔다. 이를 위해 농가가 소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농가 규모와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증적 산업조직론(new empirical industrial organization: NEIO)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집중화와 시장지배력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이는 러너 지수(시장 독점도를 평가하는 지수)의 계산과 평가를 포함하며, 판매자와 구매자 독점에 따른 이윤 마진을 측정하고 이러한 마진들을 시장 집중 지수에 연관시키는 방법을 이용한 것이다.

러너 지수값이 소매업자의 시장지배 정도를 나타내나, 그 자체로 소매업자의 지배력이 농가 수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이는 소매업자에 의해 유도된 도매가격의 하락이 농가에게 얼마나 이전되는지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러너 지수와 가격이전 분석을 결합시켜 도매가격 변화가 어떻게 농가 수익 변화와 연계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농식품 공급체인의 가격전달체계 분석

시장집중이 소비자, 가공업자, 농민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의 일부분으로 식품 공급 유통망을 따라 가격변화가 얼마나 신속히, 어느 정도 전달되는지를 분석한다. 불완전한 가격전이의 원인과 가격전이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논의되었다.

중간상인의 독과점적 시장지배력이 높은 경우, 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면 완만하게 완전히 공급체인을 통해 전달되는데 반해, 반대로 농가판매가격이 상승하면 빠르게 최종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가격전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가격전이가 발생할 경우 무역자유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대를 과다 평가할 우려가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서 가격전이에 관련된 문제는, ① 가격전이의 속도와 정도, ② 가격이 상승한 경우와 하락한 경우의 상이한 가격효과, ③ 가격전이 방향(예를 들면, 농가가격→소매가격, 소매가격→농가가격)에 따른 다른 가격효과로 요약될 수 있다.

가격전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① Dummy variable 활용, ② pre-cointegration technique, ③ Asymmetric threshold ECM, ④ Threshold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이 있다.

쇠고기, 닭고기, 계란을 대상으로 미국의 농가, 도매, 소매가격 (1974.12~2001.12) 자료를 활용하여 각 유통단계별 가격전이 효과 분석한 결과, 쇠고기와 닭고기의 도소매 가격조정반응은 비대칭적이거나 농가가격은 대칭적이며, 계란은 모든 단계에서 대칭적 가격전이가 나타났다.

3.3. 민간자체 품질기준의 경제적 효과

민간품질기준(private standards)은 거래비용을 줄이고 제품 속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품질기준보다 엄격한 정확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경쟁적인 농식품 시장에서 식품 유통 단계별로 이러한 민간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상황은 다양한 정책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민간품질기준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를 정리하면, ① 정부품질기준과 민간품질기준의 상호작용 문제, ② 식품산업분야의 경쟁력, 유연성 및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품질기준 방안, ③ 식품유통단계별 부과되는 엄격한 기술 및 품질 기준을 신속하게 충족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문제, ④ 민간품질기준은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적, 물적 자본 투자 및 개발 유도, ⑤ 민간품질기준과 정부품질기준은 소비자를 제외한 식품유통 관계자들에게 상당한 비용을 유발하여 농민에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비용 및 효과 배분 문제 발생, ⑥ 민간품질기준은 전 생산과정에 걸쳐 엄격한 기술

요건을 요구하여 개도국의 OECD 국가에 대한 시장접근(수출)에 중요한 제약 요인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민간품질기준과 농식품 시스템

농식품 민간품질기준의 3가지 특징은, ① 생산 품질·안전성 관리뿐만 아니라 가공공정 및 환경, 노동조건 등의 자체 기준으로 범위 확대, ② 선도 기업들의 공통적인 식품품질기준 채택 경향: SAI(sustainable agricultural initiative), GFSI(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등, ③ Business to business(B2B) 표준: 농식품 기업이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품질기준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소수의 대규모 소매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심화되어 낮은 가격과 다양한 제품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대형 소매업체는 자사 브랜드(private labels), 자사 품질기준(private standards)을 통하여 유통뿐만 아니라 농식품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평균적으로 자사 브랜드는 수익의 11~40%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품질기준은 제품의 품질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한다.

종래 공적 영역이었던 환경, 노동 등에 대한 소비자와 NGO의 관심증대는 농식품 소매업자의 품질, 안전성 기준 개발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소매업자들의 제휴로 공통의 품질기준을 사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GFSI는 2000년 소매업자들이 개발한 식품안전기준으로 GAP, GMP, GDP를 통합한 품질기준 체계이다.

설문조사 결과,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자는 기업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자사 품질기준을 채택하고 있으며, 85%이상이 자사 품질기준이 정부 품질기준보다 엄격하다고 답변하였다.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품질관리를 위해 농식품 생산의 추적가능성(traceability)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답변하였고 실제

주요 식품에 적용하고 있었다. 특히 개도국의 수입농산물에 EuroGap, SQF1000 등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까르푸, 월마트 등 대형 소매업자는 자사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품질기준을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단일의 품질기준을 만들면 인증비용과 거래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공급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하고 식품산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만 한편으로는 반독점 위반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

민간품질기준의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면, 우선 민간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주로 영세농)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고, 한편 이런 품질기준은 인적, 물적 자본 투자 유발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개도국의 농민들은 선진국의 품질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선진국 시장진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즉, 선진 기업들이 요구하는 엄격한 품질기준은 개도국에 대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민간품질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농가도 농식품 산업의 구조(시장 지배력 정도 및 품질 차별화 정도 등)에 따라 별도의 시장을 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2) 민간품질기준과 개도국의 세계공급체인 접근 문제

민간자체 품질기준이 개도국의 시장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민간품질기준 적용의 농산물 무역 왜곡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실제로 민간품질기준은 정부기준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고 실질적으로 의무적 성격을 가져 WTO/SPS 위원회에서도 민간품질기준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평이 표출되고 있다.

소매업자가 민간품질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는 평판을 유지하는 것이며 소매업자로서는 커다란 자산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최소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품질기준을 설정한다.

민간품질기준의 특징은, ①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및 노동요건 등 광범위한 기준, ② 관리시스템 성격: ISO 9000, HACCP, EuroGap 등, ③ 믿을 만한 인증 및 감시 시스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품질기준을 충족시키는 생산자를 확보한 주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적정수준의 공급과 품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빈개도국 입장에서는 식품시장 접근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부분의 개도국은 과일과 채소와 같은 노동집약적 품목에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여 왔으나 고소득 국가의 대규모 유통업체(월마트, 테스코, 메트로 등)가 제시하는 민간품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장비, 관리기법이 요구되는 바, 민간품질기준은 개도국의 비교우위를 침식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uroGap 등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품질기준이 개도국 농산물의 고소득 OECD 국가로의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칠레, 남아공, 페루, 가나의 신선과일 및 채소 수출사례를 중심으로 생산자, 수출자, 수입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 대농이나 수출업자들은 선진국의 민간품질기준에 대체로 잘 적응하나 영세농들은 인적 및 물적 자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선발 개도국(칠레)의 정부는 생산과 수출산업에 적절한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정부와 민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식품공급체인에서 공공품질기준과 민간품질기준의 상호작용

문헌조사를 통해 식품품질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치성과 상호교차관계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고품질 안전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식품업체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의 품질기준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공공품질기준의 기본적 역할과 민간품질기준의 보충적, 대체적 역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및 세계시장에서 식품의 품질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표 1 식품경제 관련 OECD의 보고서 내용과 분석 방법

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방법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 selected economic issues(2003.11)	○ 민간표준의 증가의 경제적 동기 ○ 민간표준이 식품유통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 식품시장 변화에 따른 정책이슈 도출	- 문헌조사 - 소매업자, 소매업연합, 글로벌 바이어 및 수출업자 등과의 인터뷰 및 조사
Changing food lifestyles: What role for which policies?(2003.11)	○ 식품소비의 주요 변화 분석 ○ 식품소비 및 구매행태와 관련된 정책 ○ 식생활패턴의 변화와 관련한 정책이슈 및 논쟁	- 문헌조사 - 국제 통계자료 분석
Changing food lifestyles: Emerging consumer concerns(2004.10)	○ 변화하는 식품경제 특징 ○ 새로운 식품 수요와 기대 ○ 소비자 단체 조사 결과	- 소비자 단체 설문조사 분석
The long term outlook for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concerns and policy options(2004.10)	○ 개도국의 영양학적 변화 요인 ○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 소비변화와 관련된 정책 대안	- FAOSTAT 자료 이용
Private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2004.10)	○ 농식품 민간표준의 특징 ○ 민간표준 관련 정책 이슈 ○ 표준의 경제학 ○ 민간표준의 통합과 확장 ○ 표준의 효과	- 대규모 유통업체, 제조업체등과의 인터뷰 조사
Changes in retail buying behavior and the impacts on structure and returns in agriculture(2005.11)	○ 소매업자의 구입 행태와 공급 체인 조직의 경향 ○ 시장구조와 농업 수익 관계 ○ 공급체인에서 소매기업의 집중화 현상	- 계량경제학 모형 - 러너 지수와 가격이전 방법론 - 사례조사
Private standards and developing country access to the global supply chains(2005.11)	○ 민간표준이 개도국의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개도국 농산물 수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민간 기준	- 사례조사 - 설문조사

표 1 식품경제 관련 OECD의 보고서 내용과 분석 방법(계속)

보고서	주요 내용	분석방법
Analysis of price transmission along the food chain(2005.11)	○“시장집중이 소비자, 가공업자, 농가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연구의 일부분으로 수행되는 보고서로서 공급체인에 따른 가격변화 효과 분석	- 문헌조사 - 가격전이 추정을 위한 계량경제학방법론 응용
Private standard schemes and developing country access to global value chain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merging from four case studies (2006.10)	칠레, 남아공, 페루, 가나 4개국의 신선과일 및 채소 수출사례를 공급체인의 생산자, 수출자, 수입업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 사례조사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2006.10)	식품기준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일치성과 상호교차관계 분석	- 문헌조사

참고자료

- (1)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 selected economic issues, AGR/CA/APM(2003.11), OECD.
- (2) Changing food lifestyles: Emerging consumer concerns, AGR/CA/APM(2004.10), OECD.
- (3) The long term outlook for changes in food consumption patterns: concerns and policy options, AGR/CA/APM(2004.10), OECD.
- (4) Private standards and the shaping of the agro-food system, AGR/CA/APM(2004.10), OECD.
- (5) Private standards and developing country access to the global supply chains, AGR/CA/APM(2005.11), OECD.
- (6) Interaction of public and private standards in the food chain, AGR/CA/APM(2005.11)(2006.10), OECD.